

2020 년 1 월 선교소식.

할렐루야!

2020 년 새해에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실 선교회 동역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1 월 첫 소식을 드립니다.

I. 탕가 신학교 소식

올해는 신학교가 현지교단에 이양된 첫 해입니다. 물론 아직 정식으로 이양식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며 충분한 준비를 해 왔기에 잘 운영될 것으로 믿습니다

1) 2020 년 신입생 입학

탕가신학교가 개교한 이후 처음으로 모집 정원(30 명)이 넘어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교실과 숙소가 부족하여 3 명의 전도자들이 돌아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돌아간 전도자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신학교의 성장면을 생각할때는 감사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학교 이양 첫 해의 출발이 좋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2) 학비 장학금과 성적 장학금

전교생이 86 명 인데 그중에서 57 명이 학비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교생 86 명 역시 개교이후 처음 있는 일 입니다. 동시에 작년 마지막 학기 성적 장학금도 지불 하였습니다.

3) 신학교 이양식 계획

올 7 월 중에 이양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계시는 우리선교회 이사님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미리 준비하여 뜻있는 이양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I. 리빙 스톤 학교 소식

매 해마다 학기초에는 약간의 교사 이동과 여러가지 가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큰 어려움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중학교 신입생들

늘 졸업이 있고 입학이 있는 것이 학교의 생리인 것처럼 그렇게 올해도 귀여운 중학교 신입생들이 병아리 같이 54 명 들어왔습니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어찌나 영어를 잘하는지 기대감이 큼니다.

2) 과학교육팀 방문

2 월 3 일부터 7 일까지 과학캠프가 열릴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충남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12 명의 봉사자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총 책임자는 충남대학교 의대 교수이신 권재열 박사님으로 저희 학교에서 3 일 그리고 이웃에 있는 정부 과학고등학교에서 2 일 실시합니다. 팀원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또한 한국과 탄자니아에서 준비하는 일들이 잘 진행 되도록 꼭 기도 부탁 드립니다.

III. 건축 소식

선교센터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의 타일 공사와 창틀 부착 일이 남았습니다.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마무리 될 수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 교회건축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에서 한분의 권사님께서 교회건축 헌금을 보내오셔서 이번 주부터 기초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교회건축 지역은 리빙 스톤 학교로부터 약 340km 거리입니다. Kilimanjaro 산이 있는 Moshi(모쉬)라는 도시 근교 지역이며 담임 전도자는 2018 년 탕가신학교를 졸업 하였습니다.

한국의 과학팀들이 사역을 끝내고 돌아가면 조만간에 방문하려합니다.

IV. 탄자니아 정부의 외국인 정책

처음보다 더 뚜렷한 정부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재 받은 체류비자가 끝날 때 (저희 같은 경우 약 1 년 반)에는 이 나라를 떠나야합니다. 실제로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는 선교사님들은 이미 철수 하였거나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혜있게 잘 준비하여 우리로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나님께는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길 기도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전도서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는 믿음의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V. 고태일, 김진우 선교사님 가정 소식

지난 약 4 년 동안 함께 사역해왔던 고태일 선교사님 가정이 북한선교라는 새로운 사명을 갖고 이달 말에 사역지를 떠나십니다. 늘 강건한 가운데 새로운 사역에 임하실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VI.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탕가신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2. 리빙스톤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3.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 나도록 (이 정책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얻는 단체는 선교단체들임)
4. 탄자니아의 외국인 정책으로인하여 복음전파가 피해를 입지않도록.
5. 수고하시고 떠나시는 고태일, 김진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새로운 달 2 월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2020 년 1 월 김은래, 박윤석 선교사 드림.